

---

---

# 낙후지역의 소프트 지역개발 전략

---

---

2006.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낙후지역의 소프트 지역개발 전략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낙후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
- III. 소프트 지역개발의 개념과 특성
- IV. 낙후지역의 소프트 지역개발 전략

## I. 문제 제기

- 지역간 발전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천적으로 지역간에 입지(location)와 자원(resources)의 조건으로 규정되는 발전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 이후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 ‘입지의 상대적 우위성’이었음
  - 대도시나 산업집적지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타 지역에 비해 인적 자원과 생산활동의 입지조건이 우월한 데 기인하고 있음
  -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발전의 최우선과제를 접근성(accessability) 개선에 두어 왔고, 자치단체의 숙원사업도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이 주로 차지해 왔음
- 그러나 낙후지역의 경우는 침체의 원인이 불리한 입지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활로를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야 함
  - 세계화로 장소간의 입지경쟁이 국내 뿐 아니라 지구적 경쟁(global competition)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증가한 현실에서 입지조건이 열악한 낙후지역이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유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낙후지역으로서는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어 대체가 어려운 자원, 즉 인력, 기술, 문화, 역사, 환경 등의 자원에 혁신활동을 결합하여 매력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대안전략이 필요함
  - 낙후지역이 바야흐로 ‘입지(location)’에서 ‘장소(place)’로 눈을 돌려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낙후지역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주여건의 개선에 두고 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시설의 개선에 주력해 왔음

- 그러나 전통적 낙후지역개발정책은 중앙의 시각, 시혜적 발상, 가시적 성과에 기초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물리적 시설 위주의 낙후지역정책이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발전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는가?
  - 소득과 일자리의 창출이 전제되지 않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농촌에서 기본적으로 생업유지가 어려운데 생활환경이 좀 나아진다고 읊기던 발걸음을 되돌리겠는가?
  
- 따라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물적 개발 위주의 전통적 지역개발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의 소프트 자원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새로운 소프트 지역개발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II. 낙후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 낙후지역에 대한 기존 인식

- 낙후지역의 개념은 나라마다 국가경제발전의 수준이나 지역격차의 정도에 따라 실천적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가 쉽지 않음
- 때문에 낙후지역의 ‘낙후’ 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의도와 강조에 따라 후진(backward), 빈곤(poor), 곤궁(distress), 침체(depressed), 쇠퇴(declining)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함의와 뉘앙스에 차이가 있음
- 대체적으로 낙후지역을 바라보는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은 ‘개발수준의 저하’, ‘생활환경의 취약’, ‘기초수요의 미충족’, ‘삶의 질의 열악’ 등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음
  - 즉, 낙후지역을 ‘살기 어려운 곳’ 이 아니라 ‘살기 불편한 곳’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낙후지역정책이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물리적 시설사업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표 1. 정부의 낙후지역 개념정의**

구 분	개 념 정 의
행정자치부	지역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자족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이 곤란한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초수요가 전국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된 지역

- 기존의 낙후지역의 개념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첫째, 대부분 개념정의가 생활환경, 개발수준, 삶의 질과 복지수준 등 삶의 조건 중 외적이고 가시적 환경에 치중하고 있어 구조적 변화나 역량 축적과 연관이 있는 ‘발전’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
  - 둘째,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과 같은 삶의 2차적 조건이자 필요조건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삶의 1차적 조건을 이루는 경제적으로 소홀히 취급
  - 셋째, 기존의 낙후지역 개념정의는 지구상에 절대 빈곤층이 다수를 점유하던 1970년대 제3세계국가들에 한때 흥미했던 기초수요접근(basic needs approach)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어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적합한 기준이 되지만 일정 수준 이후 발전단계에서는 부적합

## 2. 낙후지역의 개념의 재정립

- 낙후지역이란 말 그대로 ‘지역발전의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뒤져 있는 지역’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① 지역발전의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② 발전의 후진 정도를 어디와 비교할 것인지가 개념규정의 핵심과제임
  
- 첫째, 지역발전의 의미는 규범적으로 주민의 복리 또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낙후지역 같은 한계지역(marginal areas)의 경우 그 의미는 더욱 큼
  -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주민의 삶에 직결된 요소는 역시 소득과 고용의 수준임
  - 즉, 소득이나 일자리와 같은 삶의 1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환경이나 정주여건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실제로 EU 등 주요 선진국의 낙후지역 선정기준에서도 대부분 소득과 고용에 관한 지표가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둘째, 지역발전의 상대적 후진성이란 비교수준을 정하기에 달려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평균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
- 이러한 개념구성에 근접한 정의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네덜란드 경제학자 Leo Klaassen의 개념정의를 꼽을 수 있음
  - 낙후지역이란 ‘주어진 한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타 지역, 특히 국가 전체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지역’ 으로 정의
  - 이 정의에는 실업과 소득의 두 가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데 상황에 따라 어느 한 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Klaassen은 초기의 개념을 발전시켜 정태적 기준인 소득수준과 동태적 기준인 소득증가율을 병용하여 지역발전단계모형으로 수정
  - 모든 지역은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발전의 역동성에 따라 번영지역 → 쇠퇴지역 → 낙후지역 → 발전도상지역을 순환적으로 이동
  -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인 신활력사업도 다름 아닌 낙후지역(IV지역: distress area)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역량을 회복함으로써 발전도상지역(II 지역: distress areas in process of development)으로 상향 이동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 을 뜻하는 기존의 낙후지역의 개념은 ‘경제적 여건이 곤궁한 지역’ 의 의미로 재구성되어 ‘살기 불편한 지역이기 이전에 살기 어려운 지역’ 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지역발전단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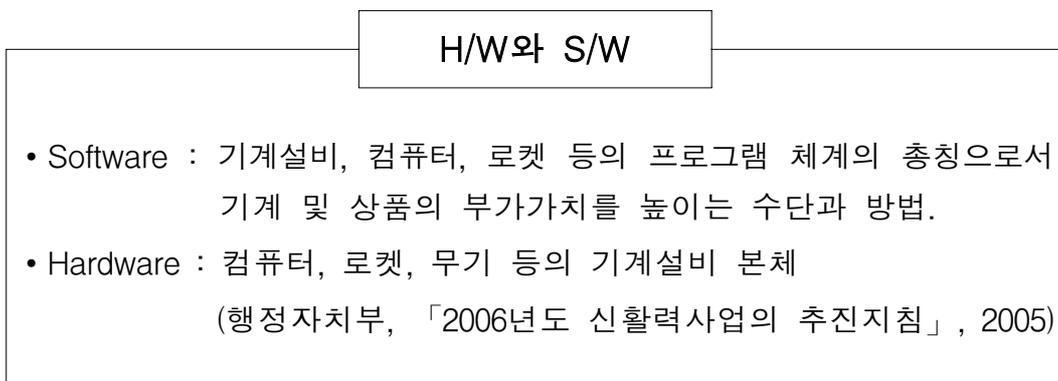
구 분		전국 대비 소득 수준	
		고(>1)	저(≤1)
전국 소득 증가율 대비 지역 소득 증가율	고(>1)	I 번영지역	II 발전도상지역
	저(≤1)	III 쇠퇴지역	IV 낙후지역

### III. 소프트 지역개발의 개념과 특성

#### 1. 개념적 구성요소

##### 가. 개념 및 의미

- ‘소프트’란 용어는 당초 ‘80년대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컴퓨터의 기계장치인 Hardware와 프로그램인 Software의 구별에서부터 연유



- ‘8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의 본래 의미가 산업, 경제, 개발 등 분야를 넘어 일상생활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가시적인 물질적 요소를 ‘Hard’로, 비가시적인 감성, 지식, 문화, 창의 등을 ‘Soft’로 통칭
- ‘소프트 지역개발’은 그 자체가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새로운 개념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시설 위주의 물리적 지역개발에 대비되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음
  - 즉, Hard 요소에 치중하는 지역개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Soft 요소를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개발로 이해
  - 소프트 지역개발을 ‘지방이 주도하여 지역의 고유한 소프트 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역량과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소득과 고용 증대의 과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물질 중심의 지역개발’로 정의

S/W사업

-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고용 및 소득창출, 향토자원 개발 등의 지역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유동자산의 성격에 대한 투자사업
- 예 : RIS구축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교육·훈련 등), 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구축 및 소비자 신뢰제고사업,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마케팅사업 등  
(행정자치부, 「2006년도 신활력사업의 추진지침」 2005)

나.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 ① 소득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설정
  - 소프트 지역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 향상, 즉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함
  - 예를 들어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또는 소득과 고용창출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일 경우에만 소프트개발로서 의미를 가짐
- ② 도시의 수요와 연계
  - 소득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요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수요는 사람과 자본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 물적 시설 위주의 전통적 지역개발이 당해 지역의 내생적 수요충족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소프트 지역개발에서는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외생적 수요가 경제 성장의 원천임
  - 낙후지역의 소프트개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상생관계가 필요함

- ③ 지역의 소프트자원을 활용하여 혁신 창출
  - 소프트자원이란 문화, 예술, 지식, 기술, 감성, 창의, 전통 등과 같은 S/W에 해당하는 비물적 자원(intangible resources)을 말함
    - 그 중에서도 지역에 토착적이고, 고유한 향토자원일수록 경쟁력이 있음
  - 특히 소프트자원은 대부분 원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재의 관리, 육성, 지원이 매우 중요
    - 소프트 지역개발에서는 명인 → 명품 → 명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인재육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을 지역발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용
  - 소프트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물리적 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자원의 활용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함을 의미
    - 즉, 문화, 지식, 창의, 감성, 기술 등 소프트 자원을 직접 사업화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에 부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활동이 매우 중요
- ④ 지방주도의 자율적 추진
  - 전통적 지역개발에서 추진했던 물적 사업들은 주어진 물량을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었기 때문에 중앙의 정형화된 획일적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반면에 소프트 지역개발에서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감성, 문화, 지식 등 소프트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매우 중요
    - 소프트자원이야말로 하향적, 획일적, 규제지향적 환경에서는 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을 지님
  -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사업선택권을 부여하고 추진과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는 자율적 추진체제가 성공의 관건임

표 2. 전통적 지역개발과 소프트 지역개발의 비교

구 분		전통적 낙후지역개발	소프트 지역개발
목표체계	사업목표	정주환경의 개선 기초수요 충족	소득 및 고용창출 발전도상지역으로 변화
	전제조건	도농분리	도농상생
사업내용	사업성격	물적 사업 인프라 구축	소프트사업 인재육성
	사업구성	백화점식 사업품목	선택과 집중
	자원활용	향토자원활용 미미	향토자원활용 극대화
	사업전략	생산, 판매 부문별 단위사업	지역마케팅 부문간 융합
추진체계	계획수립	중앙지침에 의한 획일적 계획 수립	지방의 자율적 계획수립
	추진주체	중앙부처 + 지자체	지자체 중심 지역혁신체제

## 2. 소프트 지역개발의 사업유형

### 가. 소프트사업의 직접 개발(I 유형)

- 소프트자원 자체를 직접 산업화, 또는 사업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교육, 관광, 브랜드개발, 축제·이벤트 개최, 공연예술, 디자인개발 등이 해당
- 예시(거창 국제화교육특구)
  - 종래에 구축해 놓은 교육도시 거창의 장소 이미지와 자원을 활용
  - 원어민 교사의 생활, 체류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에듀피아」를 조성, 창출하여 거창 및 주변지역의 영어 등 외국어 체험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역발전 도모
  - 동시에 유교 등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케 함

**나. 기존산업의 소프트화(Ⅱ유형)**

- 기존의 전통산업에 소프트자원을 접목하여 변형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서 오리쌀(화천군 토고미 마을), 다랑이논 관광(남해군 가천마을), 옷칠피혁(함양군) 등이 해당
  
- 예시(다랑이논 관광)
  - 경남 남해군 가천마을은 산비탈을 깎아서 계단식 다랑이논을 조성
  - 주변 바다 풍광과 다랑이논이 신비한 경관을 연출하면서 이 마을은 일약 도시민의 관광명소로 부상
  - 문화재청은 가천마을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다. 부문간 융합(Ⅲ유형)**

- 1차, 2차, 3차 산업간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Blue Ocean)을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1차+2차), 관광과 지역특산물의 연계(1차+3차), 지역특산물을 제품화하고 관광지로 개발(1차+2차+3차) 등의 사례가 포함
  
- 예시1 (1차+2차 : 고창 복분자)
  - 고창의 전통 지역자원인 복분자를 상품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
  - 1차상품인 복분자를 생산할 뿐 아니라, 여기에 소프트자원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풍천장어와 복분자(覆盆子)”를 응용, 가미하여 명품화
  
- 예시2 (1차+3차 : 화천군 토고미 마을)
  - 단순한 벼 생산에서 탈피하여 1차 생산물을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
  - 친환경 농산물 재배방식으로 오리농법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오리입식 이벤트 등 농사체험을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3차산업을 접목하여 지역의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시킴

- 예시3 (1차+2차+3차 : 보성 녹차)
  - 녹차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 상품으로 녹차를 재배함
  - 다음으로 재배한 녹차에 브랜드를 부착하여 명품으로 가공, 생산
  - 여기에 다원(茶園), 재배지, 가공공장, 시음장 등을 관광 명소화 함으로써 3차산업적 요소를 가미하여 소프트 사업화 추가

### 3. 소프트 지역개발의 실태

- 소프트 지역개발정책의 제도화 사례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방 소도읍육성사업, 농촌시범마을사업, 신활력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 :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자치 단체가 스스로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로써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서 지역특성화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 심사하여 시행
  - 농촌시범마을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어촌체험마을(해수부), 아름마을(행자부), 문화역사마을(문화관광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주제별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
  - 신활력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낙후지역의 특성화개발 지원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가 70개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치단체가 수립한 다양한 특성화개발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프트 지역개발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 개발정책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향토산업, 지역마케팅, 지역브랜드사업, 지역 축제, 농촌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향토자원의 소프트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지역에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 개발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IV. 낙후지역의 소프트 지역개발전략

### 1. 소프트 지역개발의 전략요소

#### 가. 지역자원의 활용 극대화

-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소프트 전략이 지역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성장동력(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 운영하는 영역기반적 전략(territory-based strategy)이 중요
- 낙후지역은 대부분 입지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장소(place)에 승부를 걸어야 하며 지역이 보유한 자산의 활용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함
- 따라서 개발사업의 테마도 지역이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차별성을 갖도록 선정되어야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나. 혁신지향적 지역발전

- 도로, 생활기반시설 등 하드 인프라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 지역개발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통해 스스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근대적 지역개발 방식으로 전환
- 특히 모든 개발과정에서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혁신창출의 수단으로 문화, 지식, 기술, 감성, 창의 등 소프트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함

#### 다. 지방주도의 자율적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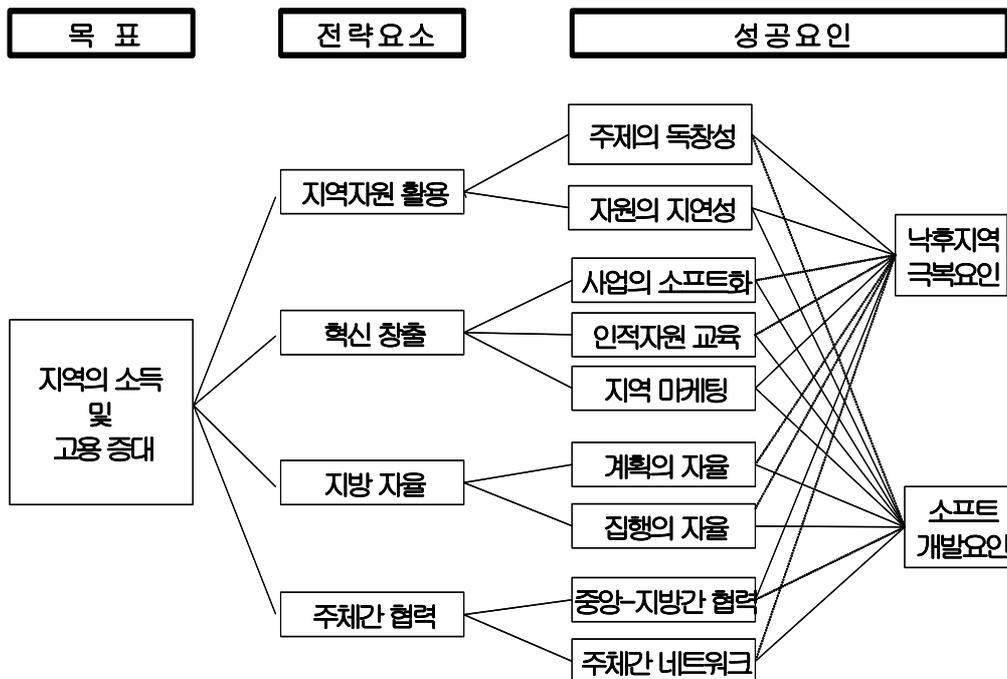
- 혁신지향적인 소프트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획일적 규제의 틀을 탈피하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관건임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주체를 선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행·재정 집행과정에서도 지방주도로 탄력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라. 혁신주체간의 협력

- 낙후지역은 인력, 자본,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혁신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을 포함한 정부간 상호협력이 중요
- 소프트 지역개발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을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동력을 개발해야 함
- 특히 낙후지역은 사업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산·학·관·연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을 모색해야 함

그림 2. 낙후지역 소프트지역개발의 추진전략



## 2. 소프트 지역개발의 성공요인

### 가. 독창적인 발전테마의 설정

- 지역의 발전테마를 ‘역발상’과 ‘차별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독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특정한 지역만의 차별화에 의한 비교우위 및 독점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테마의 발굴을 위한 조직 및 제도를 사업계획 초기 뿐 아니라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활성화시켜 차별화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 나. 지역고유의 향토자원 활용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현실에서 입지가 불리한 낙후 지역으로서는 타 지역으로부터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만의 고유한 향토자원의 활용을 통해 활로를 모색
-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모방, 답습하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을 지양하고 가장 지방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발상이 필요하며 지역의 향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함

### 다. 소프트 사업을 통한 혁신 창출

- 향토자원의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획력, 아이디어, 창의성, 응용력 등 혁신활동을 통한 소프트사업화가 중요
- 소프트자원의 접목을 통해 향토자원이 재배 및 생산으로 끝나지 않고 가공 및 명품화, 관광 및 체험 등으로 융합 또는 복합화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
- 특히 역사, 전설, 설화, 인물, 전통기술, 토착문화 등 지역만의 고유한 소프트자원의 접목을 통해 ‘스토리과 개성이 담겨있는’ 인간적 지역개발을 추구

**라.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소프트자원은 대개 인간의 창조 활동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자원을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성공의 관건임
- 맞춤형 교육, 현장밀착형 교육, 상호학습을 위한 동아리활동, 전문 컨설팅, 실습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발전테마에 부응하는 전문지도자를 양성

**마.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전략을 구사**

- 주로 지역의 내생적 수요충족이 목적인 전통적 지역개발과 달리 소프트 지역개발은 소득창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외생적 도시수요에 부합해야 함
- 외생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개발사업과 연계시키는 지역 마케팅을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필수적임
- 브랜드는 지역의 대표성과 시장성이 있어야 하며, 이와 연계한 소프트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험, 학습, 상품의 회원제, 분양 등을 통한 도시민과의 ‘인연형성’ 마케팅 전략의 활용이 중요

**바. 지방의 자율적 사업수행**

- 소프트 개발의 토대가 되는 향토자원에 정통한 주체가 바로 지방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서의 지방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지방에 대한 계획, 집행의 자율성 부여를 통해 기획력, 창의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으로 하여금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혁신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야 함

사. 추진주체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 소프트 지역개발은 지식,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을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추진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과 지방의 사업추진의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 및 역할분담체계 형성이 필요함
- 사업역량이 부족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 각 분야별 전문가 풀을 통한 사업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포럼, 아카데미, 세미나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학습과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함

내용문의 : 김선기(sun@krila.re.kr), 김현호(hhkim@krila.re.kr)

배포문의 : 김선미(02-3488-7361)